

## 찾아오시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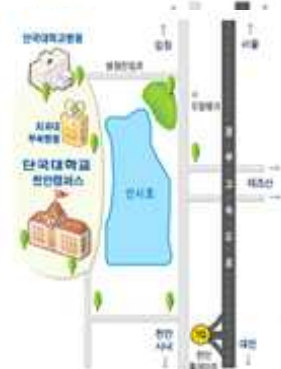
**남** 전 시대에 남한의 예술은 국가의 정책과 검열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당해 왔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는 회복되었지만, 오랜 기간 예술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북한의 예술은 시작부터 정치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었으며, 1990년대 초반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더욱 더 경직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남북한 문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남북한 문예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합을 꿈꿀 수는 없는 걸까? 본 학술대회는 광복·분단 70년을 맞는 2015년의 마지막 달에 남북한 통합문예사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1. 단국대학교병원
2. 체육관
3. 박물관
4. 천지장(기숙사)
5. **울국기념도서관**
6. 안동공작관
7. 사회과학관
8. 제1과학관
9. 제2과학관
10. 생명자원학관
11. 학생회관
12. 단국대학교병원
13. 대문동굴
14. 주차장
15. 단국대학
16. 안서동
17. 공강
18. **한서호**
19. 제3과학관



### 한국문화기술연구소

(330-7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119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D동 206호

Tel. 041-550-3798

## 확장하는 경계, 공존의 장 : 남북한 통합문예사의 쟁점

일 시 2015년 12월 10일(목) 13:00-17:40

장 소 단국대학교 울국기념도서관 CS경영센터 내 강의실

주 최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후 원 단국대학교, 한국연구재단

## 제 1부 (13:00-14:00)

제 3회 단국대학교  
학부·대학원생 분단, 통일  
관련 비평 및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사회 최수웅 (단국대)

휴식 (14:00-14:20)

## 제 2부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 (14:20-17:40)

개회 (14:20~14:30) 김수복 (한국문화기술연구소장)

기조발제

박태상(한국방송통신대 대전·충남지역대학 학장)

김정은의 홀로서기와 '최첨단 돌파'의 과제

-『조선문학』 소재 북한소설을 중심으로

사회 박덕규(단국대)

주제발표 1. 임옥규(단국대) / 토론 박미영(백석대)

1950년대 북한의 부르주아 문학담론

주제발표 2. 한상언(한양대)/ 토론 정영권(단국대)

박학의 삶과 영화 활동 연구

휴식 (16:00-16:20)

주제발표 3. 홍지석(단국대)/ 토론 신수경(명지대)

프롤레타리아 미학과 부르주아 미학

주제발표 4. 강상대(단국대)/ 토론 김미진(단국대)

북한지역의 녹색부인 서사연구

종합토론 (17:20-17:40)

사회 박덕규(단국대)